

#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의 기획 의도와 성과



**석희진** 과장  
농림부 농촌지역개발과

## 1.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의 기획 의도

최근 국민소득의 향상 및 가치관 전환에 따른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원생활과 농어촌체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농촌을 방문하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농촌과 도시의 교류가 형성되고 있다.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 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거래, 제공 등을 말한다. 교류를 통해 도시민은 농촌에 부족한 자원인 사람·기술·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농촌에서 건

강과 여가활동, 안전한 먹거리 등을 얻기도 한다. 또한 농촌주민은 활력을 되찾고 소득을 꾀하여, 궁극적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주민이 함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이처럼 도농교류는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지만 정부가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도농교류 붐을 조성하고 그 촉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공존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 〈표 1〉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 개요

- **주 제** : 신나는 농촌체험, 즐거운 가족여행
- **일시 및 장소** : 5. 3(목)~5. 6(일)[4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 **참가기관** : 농산어촌체험마을(68개), 지자체(10개), 유관기관 및 업체(18개)
- **전시규모 및 내용** : 실내 2,403평(349부스), 야외 413평(20부스)
  - 제1관(129부스, 자연과 하나 되기)
  - 제2관(73부스, 알찬 농업·농촌정보 알아보기)
  - 제3관(127부스, 전통문화의 매력탐구)
- **주 회** : 농림부, KBS한국방송(주관 : 한국농촌공사, KBS플러스)
- **후 원** :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교육인적자원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도농교류페스티벌은 도심 속에서 농촌주민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체험축제로 도농교류의 대표적인 홍보수단이다. 도시민에게 농촌의 다양한 체험, 먹거리, 전원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여 농업·농촌의 가치를 바로 알고 찾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농촌주민 스스로 타 마을과 차별화된 농산어촌체험 콘텐츠를 발굴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간 벤치마킹으로 주민역량과 마을의 자생력을 증진시켜 농촌의 활기를 되찾는 기회로도 활용코자 하였다.

## 2.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의 주요내용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은 “신나는 농촌체험, 즐거운 가족여행”이라는 주제로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동 페스티벌의 관람객으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 20~40대 학부모를 주요대상으로 하였으며 50대 이상의 장·노년층도 포함시켰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에게는 살아있는 현장 체험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20~40대 학부모에게는 어린이날 가족단위의 농촌체험과 여름휴가장소 및 친환경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 정보를, 50대 이상 장·노년층에게는 전원생활 및 휴양·휴식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동 페스티벌에는 농촌에서 도농교류를 이끌어가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주민과 이들을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기관, 그리고 농촌관광·도농교류관련 업체 등이 참가하였다. 특히 제주의 ‘혼인지마을’에서 휴전선 바로 밑 강원도 화천 ‘토고미마을’까지, 모두 70여개 마을, 300여

명의 농촌주민이 도시민을 만나기 위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체험 콘텐츠를 준비하였다. 농촌에 직접 가야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300여 가지를 도심 한 복판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축제의 특징이었다.

페스티벌의 주요 내용은 크게 전시(실내·야외)와 행사로 구분되는데, 실내의 제1전시관과 제3전시관은 각각 ‘자연과 하나 되기’와 ‘전통문화의 매력 탐구’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산어촌마을 체험관 및 공동 체험관으로 구성하였다. 각 체험마을 부스에서는 마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여름휴가 등 방문예약, 마을의 특색 있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관람객들이 마을의 특산물을 시식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각 도별로 공동판매장을 운영하여, 도시민들이 질 좋은 농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전시관은 ‘알찬 농업·농촌정보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도농교류 정책홍보관, 휴양·휴식정보관 등으로 준비하였다. 1사1촌 운동을 비롯하여 정부와 관련기관·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도농교류 정책 정보, 농촌에서의 전원생활과 휴식·휴양 정보, 축산물 및 유제품 등 고품질 안전축산물 정보를 제공하였다.

보리밭이 배경인 야외 전시장에는 실내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체험을 마련하여 어린 학생들이 직접 염소, 토끼 등을 만져볼 수 있는 ‘아기 동물 농장’과, 대나무 물총 쏘기, 금속 활자 제조시연 등을 할 수 있었다.

그 외 행사로는 공식행사, 부대행사, 방송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2와 같다.

〈표〉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전시관(자연과 하나 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대상 : (평일)유치원·초등학생·교사, (주말)가족</li> <li>· 전시내용 : 농장체험, 산촌체험, 논농사체험, 문화체험 등</li> <li>· 체험마을 홍보관, 공동체험장, 공동판매장</li> </ul> </li> <li>▶ 제2전시관(알찬 농업·농촌정보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대상 : 중장년층</li> <li>· 전시내용 : 정책홍보관, 전원생활, 고품질 안전축산물, 산림휴양정보 등</li> <li>· 도농교류 정책홍보관, 휴양·휴식 정보관</li> </ul> </li> <li>▶ 제3전시관(전통문화의 매력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대상 : (평일)유치원·초등학생·교사, (주말)가족</li> <li>· 전시내용 : 전통공예, 민속놀이, 자연학습, 토속음식</li> <li>· 체험마을 홍보관, 공동체험장, 공동판매장</li> </ul> </li> <li>▶ 야외전시장 : 청보리밭, 금속활자 만들기 등 야외체험장</li> </ul>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행사 : 개막식, 우수마을 시상식</li> <li>▶ 부대행사 : 그린포럼, 세미나, 농산어촌 체험사진 공모, 각종 공연 등</li> <li>▶ 방송행사 : KBS 특집생방송, KBS상상일요일 등</li> </ul>

전시형태로 참가 한 마을간·지역간 정보교환 및 벤치마킹의 효과가 있었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준비과정부터 행사기간 중 전시·운영 및 도시민과의 교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하였으며, 본 행사를 학습·견학장소로 찾은 비 참여 마을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전시기술, 서비스제공, 행사의 내용 등이 1회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으며, 도시민에게 행사주제인 '신나는 농촌체험, 즐거운 가족여행'에 부합하는 흥미

### 3.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의 주요성과 및 개선점

도심 속 농촌체험 축제로 관심을 모았던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에는 모두 8천2백여명이 다녀갔으며, 200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그 질과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총평이다. 몇 가지 측면에서 동페스티벌의 주요성과와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sup>1)</sup>.

#### 가. 페스티벌의 개최목적 및 기본방향 측면

동 페스티벌의 주요성과라면 당초 개최목적에서 도 밝혔듯이 도농교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았으며, 주민이 자신의 마을 및 체험거리를 소개한

있는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였다는 평이다.

반면, 전시의 경우 농업·농촌의 문화와 가치에 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였으나 강한 인상이 남는 농촌의 가치 전달에는 다소 미흡하였다. 따라서 마을주민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으로 실제 참여를 통한 도농교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방향도 필요하겠다.

#### 나. 행사운영 측면

행사 주관 측과 참가자 측에서 본 행사운영은 첫째의 2005 도농교류페스티벌에 비해 마을주민들

1)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 사후평가회(2007.5.23)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 개막식

의 증진된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자체의 행정·예산 지원으로 페스티벌의 질이 향상되었다는게 전반적인 평이다. 이러한 것은 그간 체험운영과 학습을 통한 주민의 역량 향상과 사전 지자체 설명회 및 마을 컨설팅 추진으로 체험 내용의 중복 등을 조정한 결과이기도 하다.

행사 중 마을부스에서 여름휴가철 중 예약방문을 한 건수는 8천여건으로 전체 방문객의 10%에 불과하지만 향후 마을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은 성과였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원받은 마을과 전시의 질이 현저히 차이가 나기도 하였다. 기존 농산물 판매위주의 전시형태에서 농산어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전시 콘텐츠의 차별화를 시도했으나 일부 콘텐츠의 경우 동질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양성을 전달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는 동 페스티벌만의 문제는 아니고 현 체험마을에서의 프로그램 다양성과 차별화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평일·시간대별 다양한 관람객 층을 확보하기 위해 연장한 개장시간은 실제 직장인의 퇴근 후 방문을 유도하는데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직장인의 관람을 주요 대상으로 할 경우 퇴근 후 이동시간을 감안하면 오후 폐장시간은 10시정도이어야 한다. 향후 개·폐장시간은 주요 관람객 층, 참가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겠다.

관람객 입장에서 볼 때 유아·초등학생을 둔 가족은 농업·농촌 문화를 체험하고, 중장년층은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유익한 행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행사장의 휴식장소와 식사장소 등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의 차별성 부족, 시중 농산물가격보다 비싼 점, 전시장 내 농촌의 여유로움보다는 산만하고 복잡한 점, 도농교류페스티벌의 주제와 거리감 있는 무대공연 등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참가자 입장에서 본 도시민의 경우 농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사전인식이 부족하여 전시된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 체험모습들

것을 충분히 느끼고 활용하지 못한 점도 있어서 추후 이에 대한 안내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추후 농촌의 특색, 편의성 등을 감안한 행사 장소의 적절성, 행사시기 및 개·폐장시간, 페스티벌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주민들 참여 등을 고려하여 보다 향상된 행사로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

#### 다. 홍보 측면

2005도농교류페스티벌에 비해 매체·시기·지역·관람대상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매체별로는 TV홍보에 집중하였으나 방송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과 온·오프라인 홍보 및 전시장과 연결되는 지

하철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협조를 통해 초등학교 체험교사 등을 대상으로 안내를 했으나 체험결정시기를 맞추지 못해 행사장을 찾은 학교 수가 많지 않았다. 향후 학교에서의 체험 장소 결정시기에 맞춰 페스티벌에 대한 행사안내는 물론 체험교사 및 학부모 운영회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농촌체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

이번 행사는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이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차별화, 농촌의 여유로움과 편안함 등 페스티벌에서 지적된 문제는 실제 체험마을의 운영과 연계되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라고 본다.

올해의 주제에 맞도록 행사가 추진되었으나 향후 도농교류페스티벌의 이미지 구축, 도시와 농촌의 교류 의미, 농산어촌의 의미와 가치전달차원에서 보다 성숙한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㉞